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관성 및 정서적 문제의 관계: 비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Mediating Effects of Pess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dren

인천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부교수 정윤주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Associate Professor : Yun Joo Chyung

목 차

I. 서론	IV. 논의 및 결론
II. 연구방법	References
III. 연구결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1)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and emotional problems represented by levels of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and (2) whether or not pessimis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emotional problems. 441 fifth and sixth graders residing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ir data were collected wit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in school class setting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s were obtained using SPSS (version 18.0), and tests of the mediation were performed using SEM with AMOS (version 20).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and emotional problems exist. Also, pessimism appears to partial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emotional problems. These results seem to indicate that mitigating pessimism could reduce the possibility of experiencing emotional problems, such as depression and anxiety, in children who have strong beliefs to live up to the high standards, set unrealistically by others.

주제어 (Keywords) : 사회부과 완벽주의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비관성 (pessimism), 정서적 문제 (emotional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Yun Joo Chyung, Department of Consumer & Child Studies, University of Incheon, 12-1 Songdo-dong, Yeonsu-gu, Incheon, 406-772, Korea Tel: +82-32-835-8251 Fax: +82-32-835-8250 E-mail: ychyung@incheon.ac.kr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08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I. 서론

요즘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2010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9,8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실태조사 분석 보고서(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아동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우울과 불안의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조사에 사용된 우울, 불안 관련 문항에 대해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약간 그렇다, 꽤 심하다, 아주 심하다)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외롭다'에 대해 48.9%, '기분이 울적하다'에 대해 55.5%, '허무한 느낌이 든다'에 대해 52.6%,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된다'에 대해 49%, '아무런 이유없이 불안하다'에 대해 35.6%, '긴장이 된다'에 대해 42.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다수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겪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을 힘겹게 하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 가능성을 높이며(Wo & Kim, 2011), 가출과 비행의 원인이 되고(J-A. Choi, 2010; Lee & Kim, 2011), 진로성숙을 저해하며(Shin & Lee, 2011), 학업 및 행동에 대한 자기유능성을 낮게 지각하게 하는(Shin, 2009) 요인으로 보고되었고, 불안은 신체화 증상을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Kim & Ha, 2011)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우울과 불안은 함께 중학생이 학업에 대해 탈진을 경험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지닐 가능성을 높이며(Shin et al., 2011), 학교적응을 어렵게 하고(Yun & Kim, 2005),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증가시키는(Lee, 2008; Lee, Doh, Kim, & Park, 2009)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최근 한국사회 전반에서 우려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학업의 어려움부터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시기의 정서적 문제는 성인기와 그 이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Mazza et al., 2008; Rao et al., 1995). 즉 아동청소년기에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지니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기제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에 효과적으

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심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완벽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완벽주의는 일반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고 그것을 충족해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지니며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비판적인 성향(Hewitt & Flett, 1991)을 일컫는데 한국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가정과 사회의 심리적 환경은 이러한 완벽주의적 성격을 띠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특히 학업성취에 관하여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Lee, 2011;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이러한 환경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정해져 있는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설정한 성취 목표보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평가할 때 내적 기준보다는 외적 기준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태는 완벽주의의 여러 차원들 중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Hewitt & Flett, 1991)에 가깝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다차원 완벽주의 모델(Hewitt & Flett, 1991)에서 완벽주의를 구성하는 세 차원 중 하나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며 스스로 설정해 놓은 높은 기대치를 자신이 충족해야 한다고 믿는 성향이고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타인들에게 엄격하며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성향이다(Flett & Hewitt, 2002). 한편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 놓았으며 그것을 충족해야만 타인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성향이다(Campbell & Di Paula, 2002). 완벽주의의 각 차원은 완벽에 대한 기대를 설정하는 주체와 완벽해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심리적 특성이나 정서적 문제와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인다.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자신이 설정한 높은 기대 수준을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율적인 동기가 작동하기 때문에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는 일관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Campbell & Di Paula, 2002)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주변 사람들에게 완벽할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보다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관련된다(Shin & Lee, 2011). 그런데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Shin & Lee, 2011)이므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민감하게 되고 타인의 평가에 의해 자아개념이 좌우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믿음에 의해 자율감을 잃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Tangney, 2002). 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긍정적 정서, 자존감,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Molnar, Reker, Culp, Sadava, & DeCourville, 2006; Saboonchi & Lundh, 2003)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도 보고되었다(Kim & Son, 2006; Lee & Rhyu, 2002; Shafran & Mansell, 2001; Yoon & Kim, 2008). 이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이 처해 있는 심리적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 완벽주의 모델에서 제시한 완벽주의 차원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는 변수로 비판성을 선정하여 매개효과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비판성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로 정의되는데 긍정적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기대인 낙관성과 함께 삶의 지향성(orientation)을 나타내는 변수이다(Scheier & Carver, 198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판성 간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개인들이 비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적, 행동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판성 간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세 차원의 완벽주의와 무망감(hopelessness)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Ohtani & Sakurai, 1995)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무망감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한 청소년들의 성취관련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Rice, Leever, Christopher, & Porter, 2006)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희망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들이 자신에게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을 쉽게 느끼게 되며(Chang & Rand, 2000),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희망적인 태도를 지니기 어려우므로(Ohtani & Sakurai, 1995; Rice et al., 2006) 미래의 모든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비판성 또한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타인이 기준 설정과 평가의 주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지각하게 되어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하며 무엇을 하려는 내적동기를 지니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on, Maier, & Seligman, 1993).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또한 수행회피 성취 목표와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Choo & Lim, 2009; Stoeber,

Stoll, Pescheck, & Otto, 2008)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들이 성취 상황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며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자신에게 주어질 과제를 수행한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며 회피하면서 좌절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비판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비판성은 낙관성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낙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정의되면서(Scheier & Carver, 1985) 낙관성과 비판성은 단일차원 연속선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에 비판성과 낙관성이 각각 별개의 차원으로 개념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을 통해 비판성과 낙관성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삶의 지향성을 나타내는 두 개의 차원으로서 정서나 성격의 주요 변수들과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즉 비판성은 불안, 우울, 신경증, 스트레스, 부정적 정서, 신체 질병과 관계가 있고, 낙관성은 삶에 대한 만족, 긍정적 정서, 빠른 질병 회복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ng et al., 1997; Marshall, Wortman, Kusulas, Hervig, & Vickers, 1992; Shin, Lyu, & Lee, 2005). 이와 같이 비판성은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되는데 특히 우울, 불안의 대표적인 위험 요인인 부정적 인지편향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 Emery, & Greenberg, 1985).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아동의 비판성과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비판성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아동의 정서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비판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한편,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하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기의 정서적 문제가 성인기 이후까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접어드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의 발생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H. W. Choi, 2010)를 고려한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 및 불안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비판성, 정서적 문제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비관성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도식화 하면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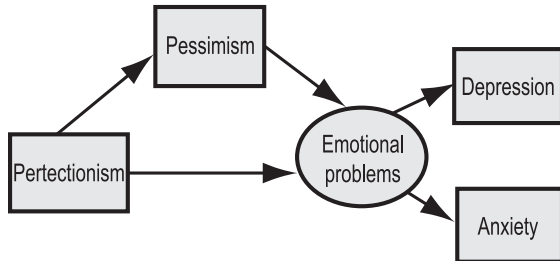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수도권 소재 공립 초등학교 한 곳에서 5학년과 6학년 아동 441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성별 분포를 보면 남아 50.6% (223명), 여아 47.4% (209명), 무응답 2.0% (9명)이었고, 학년 별 분포는 5학년 57.1% (252명), 6학년 40.4% (178명), 무응답 2.5% (11명)이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1.8% (8명), 고등학교 졸업 48.5% (214명), 전문대학 졸업 9.1% (40명), 대학교 졸업 이상 32.0% (141명), 무응답 8.6% (38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 1.4% (6명), 고등학교 졸업 61.0% (269명), 전문대학 졸업 8.4% (37명), 대학교 졸업 이상 20.8% (92명), 무응답 8.4% (37명)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어렵다 1.1% (5명), 어렵다 7.9% (35명), 보통이다 61.7% (272명), 넉넉하다 23.8% (105명), 매우 넉넉하다 2.7% (12명), 무응답이 2.7% (12명)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Hewitt & Flett, 1991)을 Lee(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완벽주의, 타인지향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15문항씩 총 45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15문항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15점부터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다

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나에게 완벽함을 기대한다.' 등이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65였다.

2) 비관성

비관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Extended Life Orientation Test (E-LOT) (Chang et al., 1997)을 Cheong(200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낙관성을 측정하는 6문항과 비관성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비관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만을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9점부터 4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관적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일은 절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다.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2였다.

3) 정서적 문제

(1)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비임상적 목적으로 우울의 정서적 측면을 측정하는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for Children (CES-DC) (Weissman, Orvaschel, & Padian, 1980)을 번안본(Jeong, 2003)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20점부터 80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정서를 높은 정도로 경험한다는 의미이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 2주 동안 '기분이 우울하고 즐겁지 않았다.', '울고 싶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내 기분을 좋게 해 주려고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2) 불안

불안은 Reynolds와 Richmond(1978)가 제작한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RCMAS)을 Choi와 Cho(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이 척도는 특성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서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8문항이 불안에 관한 것이고 9문항은 응답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허구 문항이다. 응답은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28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들어보면,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

날까 걱정한다.’, ‘나는 예민하다.’ 등이다.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3.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1) 연구절차

자료조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응답 아동들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사 대상 초등학교에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 조사 승인을 받은 후 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에서 아동이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441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대응별(pairwise) 또는 목록별(listwise)로 삭제하여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였다(Newman, 2003).

2)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했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척도 문항들 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관성이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지수로는 χ^2 검증과 함께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연구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제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Variable	M	S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44.60	6.27
Pessimism	24.15	6.41
Depression	34.22	10.37
Anxiety	8.99	6.36

1.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비관성 및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비관성 및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비관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r = .31, p < .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문제인 우울($r = .33, p < .01$), 불안($r = .38, p < .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이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을 강하게 지닐수록 비관성이 강하며 우울과 불안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essimism, depression, and anxiety

	Pessimism	Depression	Anxiety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31**	.33**	.38**

** $p < .01$

2.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비관성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 관계에 대한 비관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완전매개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하여 먼저 추정한 후 부분매개모형을 추정하여 두 모형의 적합도 χ^2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비관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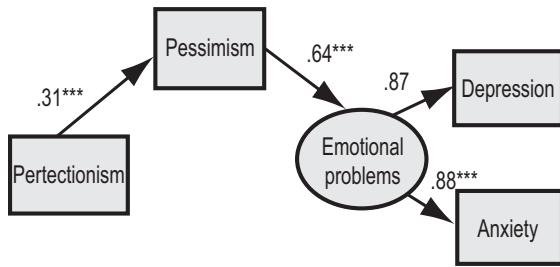
먼저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비관성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비관성에 유의한 영향($\beta = .31,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관성은 정서적 문제에 유의한 영향($\beta = .64,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

Table 3. Path coefficients from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Paths	B	β	S.E.	t
Perfectionism → Pessimism	.32***	.31***	.05	6.77
Pessimism → Emotional problems	.91***	.64***	.07	13.92
Emotional problems → Depression	1.00	.87	-	-
Emotional problems → Anxiety	.62***	.88***	.04	17.06

*** $p < .001$

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비판성이 강했으며, 비판성이 강할수록 정서적 문제의 정도가 높았다.



Note. Measurement errors are not shown.
*** $p < .001$

Figure 2. Complete mediation model.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χ^2 검증의 결과는 $\chi^2_{df=2} = 30.31$ ($p < .001$)로 나타나 완전매개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TLI = .778$, $CFI = .956$, $RMSEA = .179$ 로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사용이 권장되는 $TLI > .90$, $CFI > .90$ (Hu & Bentler, 1995)와 $RMSEA < .08$ (Browne & Cudeck, 1993)을 대체로 충족하지 못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부분매개모형을 추정하였다. 즉 기본모형인 완전매개모형에 사회부과 완벽주의에서 정서적 문제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비판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4와 Figur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비판성($\beta = .31$, $p < .001$)과 정서적 문제($\beta = .22$,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판성은 정서적 문제에 유의한 영향($\beta = .57$, $p < .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비판성과 정서적 문제의 정도가 높았으며, 비판성이 강할수록 정서적 문제의 정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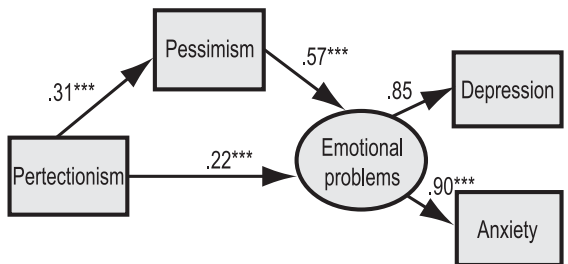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χ^2 검증의 결과는 $\chi^2_{df=1} = 3.79$ ($p = .052$)로서 부분매개모형이 자료와 합치된다는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았으며, $TLI = .956$, $CFI = .996$ 으로 양호한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RMSEA = .080$ 은 양호한 적합도 기준의 경계에 있으나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로 보며, 변수의 수가 적어 자유도가 낮은 모형에서는 $RMSEA$ 수치가 높게 산출되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Hong, 2000)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에서 우울과 불안에 대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설명력($Adj-R^2$)는 각각 .81과 .73이었다.

부분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합도

Table 4.
Path coefficients from the partial mediation model

Paths	B	β	S.E.	t
Perfectionism → Pessimism	.32***	.31***	.05	6.67
Pessimism → Emotional problems	.79***	.57***	.07	12.19
Perfectionism → Emotional problems	.31***	.22***	.06	5.19
Emotional problems → Depression	1.00	.85	-	-
Emotional problems → Anxiety	.65***	.90***	.04	17.87

*** $p < .001$



Note. Measurement errors are not shown.
*** $p < .001$

Figure 3. Partial mediation model.

가 높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모형의 χ^2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Delta\chi^2_{df=1} = 26.52$ ($p < .001$)로서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가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최종모형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정서적 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비판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부분매개모형에서 비판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Sobel 검증이나 bootstrap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Amos에서는 결측치를 FIML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에 bootstrap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판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12$, $p < .001$). 즉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비판성의 매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비판성 및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비판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비판성, 정서적 문제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동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아동의 비판성, 정서적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비판성은 정서적 문제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대를 충족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을수록 아동은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며 정서적 문제도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많이 할수록 정서적 문제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높은 기대가 타인에 의해 설정되어 있다는 믿음이므로 그러한 기대는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강할수록 앞날에 대해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비판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신이 충족해야 하는 기대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설정되었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 조절할 수도 없으므로 자신이 얻게 될 결과에 대해 사전에 실망하며(Chang & Rand, 2000) 비판적인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비판성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경직된 사고 및 인지적 편향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들(Brown & Beck, 2002; Gilbert, Durrant, & McEwan, 2006)과 관련 지어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자는 타인의 높은 기대를 충족해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건수용, 실패에 대한 일반화, 오류에 대한 지나친 관심,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피드백을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아동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을 목표로 삼아 절망하며, 실패나 오류를 실제보다 더 크게 지각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부정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기대를 하는 비판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수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정서적 부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Blankstein & Dunkley, 2002; Hewitt et al., 2002; Kim & Son, 2006; Molnar et al., 2006)과 일관되는 것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수

준의 기대를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만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다(Campbell & Di Paula, 2002). 따라서 아동이 이러한 믿음을 강하게 지닐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믿게 되고(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거부당할 것이 두려워 성취상황에서 회피하며 적극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므로 무능력감을 느끼면서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에 취약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Choo & Lim, 2009; Stoeber et al., 2008).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스트레스 경험 후에 스트레스 유발 상황에 대한 반추사고와 침투사고가 빈번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Flett, Madorsky, Hewitt, & Heisel, 2002) 점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재경험 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다.

비판성과 정서적 문제 간에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는 비판성이 스트레스, 신경증, 부정적 정서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Chang et al., 1997; Kim, 2008; Shin, 2005)과 일치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개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부정적 사건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원인을 일시적이거나 특정 부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이며 전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Seligman, 1998). 따라서 비판적인 아동은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으며 바뀔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비난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판성이 높은 아동이 이러한 귀인 양식을 지니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자신이 상황을 바꾸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아동의 비판성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의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 알아본 결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키는데 이 관계는 부분적으로는 비판성의 매개 작용에 의해서라고 해석된다. 이 결과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어떻든 거기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은 자신의 수행 결과가 완벽할 때도 만족감이나 자긍심을 느끼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불만족감을 경험했다는 연구결과(Stoeber & Yang, 2010)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상황까지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탓을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하지 못하며 비판성을 키우게 되고 이에 따라 우울, 불안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인지가 부정적으로 편향되는 특성을 보이는데 (Brown & Beck, 2002; Gilbert, Durrant, & McEwan, 2006) 이러한 특성은 사소한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각하게 하여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기대를 낳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정서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신이 타인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합되어야 수용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해 타인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한데 충족해야 하는 기대치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도달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사회부와 완벽주의자들은 무엇을 이루고자 시도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며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믿는 비관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모습이 어떻든 겉으로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데 주력하며 문제해결이나 성취 상황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Park, Heppner, & Lee, 2010). 이처럼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비관성에 기인한 회피적 태도를 취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취를 이루는 경험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자기 확신은 약화되고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관성이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정서적 문제 간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비관성이 높은 개인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비관적인 개인은 스트레스 원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일 때도 통제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위축되어 포기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며 (Shin, 2005), 스트레스 원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상황을 직면해야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회피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정서적 문제를 겪게 된다고 한다 (Scheier, Weinraub, & Carver, 1986). 따라서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의 아동은 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지에 의해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도 시도하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정서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비관성을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그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아동의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비관성을 거쳐 간접적으로 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부정적인 인지 편향으로 인해 비관성으로 이어지며 비관성은 주어진 일들에 대해 회피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회피적이고 소극

적인 태도는 성취 경험을 할 기회를 제한하여 자신감을 얻기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서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완벽해야만 얻을 수 있는 타인의 인정을 얻고자 자신의 실제 모습과는 상관없이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여 정서적 문제에 취약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에 진행되어야 할 연구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완벽주의에 대해 최근까지 수행된 연구들은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루므로 문헌고찰 및 논의에서 아동 대상 연구결과만을 사용하지 못하고 청소년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들까지 사용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에 한계가 있다. 셋째, 사회부와 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 문제 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매개효과 검증으로서 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성차는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의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 아동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종단적 연구를 통해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에 영향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 비관성, 정서적 문제 간 관계에 성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문제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사회부와 완벽주의가 아동의 비관성을 높이고 정서적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우선, 한국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심리적 환경의 개선이 시급함을 알려준다. 부모의 기대와 비난이 자녀의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 (So & Kim, 2009)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정서적 문제를 증가시키는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심리적 환경에 의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획일적인 성취목표를 부과하고 압력을 가하기보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율적인 성취동기를 지닐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은 아동의 비관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므로 완벽주의적인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이 긍정적 인지체계를 지니게 함으로써 비관성에 빠지지 않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수용과 인정을 받을 수 있

고, 작은 성취나 성공도 가치 있으며, 힘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길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지적 변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이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을 수 없고 성취나 성공이 불가능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비관성에서 벗어나 정서적으로 보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New York: Basic Books.
- Blankstein, K. R., & Dunkley, D. M. (2002). Evaluative concerns, self-critical, and 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ate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85-3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 G. P., & Beck, A. T. (2002). Dysfunctional attitudes, perfectionism, and models of vulnerability to depression.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31-25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 111-135). Beverly Hills, CA: Sage.
- Campbell, J. D., & Di Paula, A. (2002). Perfectionistic self-beliefs: Their relation to personality and goal pursuit.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81-19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3(3), 433-440.
- Chang, E. C., & Rand, K. L. (2000). Perfectionism as a predictor of subsequent adjustment: Converging evidence for a specific diathesis-stress mechanism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129-137.
- Cheong, Y. S. (2008). Self-regulated learning by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perfection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H. W. (2010). The prevalence and epidemiological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depressive disorde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Chunahn, Korea.
- Choi, J-A. (2010). The reciprocal causation between delinquency and depression during early adolescence: Test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effects. *Studies on Korean Youth*, 21(4), 143-169.
- Choi, J-S., & Cho, S. C. (1990). Assessment of anxiety in childre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9(3), 691-701.
- Choo, S. Y., & Lim, S. M. (2009).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formance avoidance goal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strategies and meta-cognitive strateg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1), 467-490.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234-252.
- Flett, G. L., & Hewitt, P. L. (2002). Perfectionism and maladjustment: An overview of theoretical, definitional, and treatment issues.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5-3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lett, G. L., Madorsky, D., Hewitt, P. L., & Heisel, M. J. (2002). Perfectionism Cognitions, Ru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Behavior Therapy*, 20(1), 33-47.

- Gilbert, P., Durrant, R., & McEwan, K. (2006). Investigating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forms and functions of self-criticism, and sensitivity to put-dow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1*, 1299-1308.
- Hewitt, P. L., Caelian, C. F., Flett, G. L., Sherry, S. B., Collins, L., & Flynn, C. A. (2002). Perfectionism in children: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xiety,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6), 1049-1061.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 Flett, G. L. (2002). Perfectionism and stress processes in psychopathology.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255-28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Hu, L-T., & Bentler, P. (1995). Evaluation model fit.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9). Thousand Oaks, CA: Sage.
- Jeong, A. (2003). The effects of family and peer relationships 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s of urban children in pover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 Son, D. (2006).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fectionism an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self-be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2), 345-361.
- Kim, J. S. (2008). The effect of optimism and pessimism o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adolescents: Coping and social support as mediating variabl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1), 271-299.
- Kim, S., & Ha, E. H.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distor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trait-anxiety and somatization symptom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2), 57-71.
- Lee, E. J. (2002). Impact of Attachment Stability and Perfectionism of late childhood on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R., Doh, H-S., Kim, M-J., & Park, B-K. (2009). Pathways from maternal parenting behavior to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control and depression/anxie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97-112.
- Lee, J. Y. (2011).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parents' learning involvement behavior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M. H., & Rhyu, J. H. (2002).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 of perfectionism - in relations with achievement goal,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9*(3), 293-316.
- Lee, S. (2008). The study on the interrelation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variables with internet addic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Latent Growth Modeling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2), 175-192.
- Lee, S., & Kim, Y. (2011). Effects' of parents' negative rearing attitude and adolescents' psychological factors on hidden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5), 245-266.
- Marshall, G. N., Wortman, C. B., Kusulas, J. W., Hervig, L. K., & Vickers, Jr., R. R. (1992).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pessimism: Relations to fundamental dimensions of mood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067-1074.
- Mazza, J. J., Abbott, R. D., Fleming, C. B., Huarache, T. W., Cortes, R. C., Park, J., et al. (2008).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depression. A 7-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0), 1-29.
- Molnar, D. S., Reker, D. L., Culp, N. A., Sadava, S. W.,

- & DeCourville, N. H. (2006). A mediated model of perfectionism, affect, and physical health.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 482-500.
-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1). 2010 Report on Korean adolescent health.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Newman, D. A. (2003). Longitudinal modeling with randomly and systematically missing data: A simulation with ad hoc, maximum likelihood, and multiple imputation technique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6*, 328-362.
- Ohtani, Y., & Sakurai, S. (1995).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depression and hopelessness in college students. *The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66*(1), 41-47.
- Park, H., Heppner, P. P., & Lee, D. (2010). Maladaptive coping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di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8*(4), 469-474.
- Peterson, C., Maier, S. F., & Seligman, M. E. P. (1993). Learned helplessness: A theory for the age of personal contr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o, U., Ryan, N. D., Birmaher, B., Dahl, R. E., Williamson, D. E., Kaufman, J., et al. (1995). Unipolar depression in adolescents: Clinical outcome in adulthood.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4*(5), 566-578.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6*(2), 271-280.
- Rice, K. G., Leever, B. A., Christopher, J., & Porter, D. (2006). Perfectionism, stress, and social (dis)connection: A short-term study of hopelessness, depression,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honors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4), 524-534.
- Saboonchi, F., & Lundh, L. G. (2003). Perfectionism, anger, somatic health, and positive af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585-159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Wein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m and pessim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257-1264.
- Seligman, M. E. P. (1998).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Free Press.
- Shafr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hin, H. (2005).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coping in the relation of optimism and pessimism to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3), 165-192.
- Shin, H. (2009). The rel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academic-social- behavioral competence in childre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73-98.
- Shin, H., Kim, B., Lee, M., Noh, H., Kim, K., & Lee, S. M. (2011).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mental health and academic burnout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8*(2), 133-152.
- Shin, H. J., & Lee, M. H. (2011).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on development of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Effects of stress, aggression,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139-161.
- Shin, S. H., Lyu, J. H., & Lee, M. J. (2005). Testing the one-factor and two-factor models of optimism and pessimism in Korea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1), 79-97.
- So, Y. S., & Kim, J. S. (2009). The mediating effects of shame and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s, maladaptive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3), 661-682.
- Stoeber, J., Stoll, O., Pescheck, E., & Otto, K. (2008). Perfectionism and achievement goals in

- athletes: Relations with approach and avoidance orientations in mastery and performance goal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2), 102-121.
- Stoeber, J., & Yang, H. (2010) Perfectionism and Emotional Reactions to Perfect and Flawed Achievements: Satisfaction and Pride Only When Perfec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3), 246-251.
- Tangney, J. R. (2002). Perfectionism and the self-conscious emotions: Shame, guilt, embarrassment, and pride. In G. L. Flet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pp. 199-21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Wei, M., Mallinckrodt, B., Larson, L. M.,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depressive symptoms, and validation from self versus oth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3), 368-377.
- Weissman M. M., Orvaschel, H., & Padian, N. (1980). Children's symptom and social functioning self-report scales: Comparison of mothers' and children's reports. *Journal of Nervous Mental Disorders*, 168(12), 736-740.
- Wo, C., & Kim, P.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219-240.
- Yoon, J. M., & Kim, J. M. (2008). The mediating effects of stress coping behavi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fectionism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3), 863-883.
- Yun, E. J., & Kim, H.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types of life-style, mental health and school-related adjustm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7(2), 105-120.

접 수 일 : 2012년 4월 2일
 심사시작일 : 2012년 4월 4일
 게재확정일 : 2012년 6월 5일